

주요용어 : 음주, 음주결과기대, 우울, 친구의 음주, 대중매체

## 일 도시 여고생의 음주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김주형\* · 김은경\*\* · 김효정\*\* · 문현숙\*\* · 오선민\*\* · 박나경\*\*  
신혜정\*\* · 이경원\*\* · 이지선\*\* · 최연옥\*\*  
최진희\*\* · 한유정\*\* · 현수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건강문제 중 청소년 자신이나 가족 및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비행 및 약물남용(특히, 음주) 문제이다(Choi, 1997). 이는 성인기에 들어가서 음주 남용 및 의존으로 진행되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위협을 가한다. 과거와 달리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의 폐지로 방과 후 여가 시간이 많이 남고 있으며 청소년의 여가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가정 외에도 유흥가를 찾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인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기회를 갖게 하고 있다(Choi, 1989). 또한 청소년이 흔히 접하는 TV에서의 음주 장면 등은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청소년의 특성(Kim, 1990)을 감안할 때, 음주를 부추기는 문화를 조장하고 있어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이 더하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음주에 관한 연구는 남성 중심으로 조사되어 왔고, 청소년 내에서도 남자 청소년의 음주 연구에 초점을 맞춰 왔다.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여성의 음주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음주의 악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청소년 집단에서도

미래 사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시내 일 지역 여고생의 음주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음주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간호중재의 생생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고생의 음주와 일반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여고생의 음주와 음주기대 및 우울증세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여고생의 음주와 친구(동성, 이성)의 음주 및 부모의 음주,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여고생의 음주와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장면 시청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II. 문헌 고찰

#### 1. 청소년기의 특성과 음주

\* 연구조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심리학적으로 청소년은 하나의 주어진 사회에서 아동의 행동과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구별하여 새로운 적응을 해야하는 한계상태를 의미하며 대체로 12, 13세로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을 지칭하고 있다(Kim, 1990).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로는 불안 및 우울, 정체성 장애, 자살, 비행, 약물남용, 성적 문란, 건강 염려증 등이 있는데, 이중 청소년 자신이나 가족 및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비행 및 약물남용(특히, 음주) 문제이다(Choi, 1997). 청소년의 음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위험한데 그 이유로는 첫째, 신체적 발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음주에 의한 신체조직, 특히 뇌, 간, 신장 등의 손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음주는 간의 세포파괴로 인한 질병 발생, 알콜의 칼로리로 인한 영양섭취의 필요성 인식부족 및 식욕감퇴, 그리고 이로 인한 영양실조와 기타 질환에의 감염위험성을 높이며, 신장질환, 심장질환, 압 등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둘째로 음주는 뇌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성 물질로 기분, 지각, 신체기능, 의식 등에 영향을 미쳐 남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음주에 노출된 학생들이 더 공격적이고 격동적이어서 판단력이 쉽게 마비되어 위험하고, 때로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격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Kim, H. J., 2000). 셋째로 성인기로 들어가면 더욱 강력한 약물의 남용 및 의존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Choi, 1997).

여성의 음주는 남성보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임신중의 음주는 알코올성 태아 증후군으로 기형아를 낳게 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의 주 담당자로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아버지보다 더 많이 미칠 수 있다. 여성 음주는 남성 음주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음주로 인한 폐해 역시 남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Korea Alcohol & Liquor Industry Association, 1998).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1999)의 자료에 의하면 1989년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중 음주자의 비율은 32.1%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54.9%로 높아졌다. 이는 성인 남성의 음주자 비율이 85.3%(1989년)에서 83.3%(1998년)으로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여고생들의 여가활용상태의 조사에서는 '학생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는 여고생이 20.5%로 나타났다(Choi, 1989). 여성의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경향을 고려할 때 여성의 음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 2.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 음주결과기대와 우울증세

음주와 관련된 심리학적 이론으로 음주기대는 (Kim, S. D., 2000) 음주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 혹은 결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나 신념이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대리학습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고, 음주를 유도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 Ryu(1997)가 제시하는 음주기대와 음주 동기에 대한 이론을 보면, 음주 기대의 경우는,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술을 자주 마시며, 음주 후에 문제 증상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행동을 예견하는데 있어서 음주에 대한 기대와 인지적 변인이 중요하다는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며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교정시켜 주면 음주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mith, Goldman, Greenbau과 Christianen(1995)의 연구에서 사회적 촉진효과를 기대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음주량을 보고하였다.

Kaufman & Heims(1958)는 청소년들이 우울증세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과 행동화의 정신방어기제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에서의 학업적 수행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Hammen, Rudolph, Weisz, Rao & Buege, 1999) 우울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업 성적이 부진하고 교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어서 전반적인 학교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Son, 1987) 등이 보고되었다. Park, J. A. (2000)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우울증세가 청소년들의 자살문제 및 비행, 학교 부적응 등 전반적인 청소년 부적응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비행집단이나 행동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10-23%가 우울증세를 동반한다고 보고하였다(Chiles, Miller & Cox, 1980). 따라서 이상의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우울증세와 비행과의 관련성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Kim, 199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증세를 알아보기 위해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1999)에서 실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은 우울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1989)가 행한 여고생의 자기 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나는 내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의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4.1%만이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여고생의 자아감 상실로 인한 음주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 2) 부모의 음주, 양육태도 및 친구의 음주가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

Goodwin(1985)의 조사에 의하면 알콜을 남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콜 남용자가 될 확률은 알콜 남용자가 아닌 부모의 경우에 비해 4배 내지 5배가 된다. McDermott(1884)는 어린 시절 보호자가 약물 남용을 하는 것을 접했을 때 그와 관련된 행동이 강화됨으로써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환경적 변인 중에 부모나 다른 가족의 음주, 흡연은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강력하게 반대하면 금연, 금주를 하겠다고 인지하고 있다(Kim, S. H., 2000). 중학생의 흡연 및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논문(Kim, H. J., 2000)을 살펴보면 가정환경과 관련된 특성(성)과 음주경험 여부와의 연관성에서 부모의 음주여부에 따라 음주경험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어머니만 음주를 하는 경우, 부모 모두 음주를 하는 경우, 아버지만 음주를 하는 경우 순이었으며, 부모 모두 술을 마시지 않는 학생들의 음주 경험율이 가장 낮았다. Ryu(1997)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력이 높은 집단이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며, 음주 후 문제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대로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는 문제성 음주에 대한 고위험 집단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Chassin, Rogosch & Barrera, 1991; Finn, Sharkansky, Viken, West, Sandy & Bufferd, 1997; Hussong, 1997; Newlin & Thomson, 1990; Sher, Walitzer, Wood & Brent, 1991).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와 상의하는 정도에 따른 음주 경험은 상의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과 부모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 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도와 관련된 음주경험과의 관계를 보면 가정이 전혀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음주를 경험율이 항상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군에

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Jang, 1988).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Kwon(1982)은 청소년 비행이 부모나 부모의 역할을 하고있는 사람들의 자녀양육과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통해서 알콜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기술 및 비행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알콜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거나 최소한으로 약화되어 많은 경우에 잘못된 정보를 얻곤 한다. 또래집단이 청소년들의 알콜의 사용을 사회화한다고 볼 수 있다.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1996)의 보고에 의하면 1996년도 7670명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62.3%가 음주경험을 갖고 있으며 (초등 46.6%, 중등55.7%, 고등 84.9%), 대략 45%이상이 비행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비행원인은 동료의 압력이나 영향이 음주의 시작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중학생의 흡연 및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Kim, H. J.(2000)의 논문을 살펴보면 음주하는 친구의 수와 음주 경험과의 관계를 보면 음주친구의 수가 4명 이상인 학생들의 음주 경험율과 음주를 하는 친구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음주 친구의 수에 따라 음주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 대중매체가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

인간은 언어를 매개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간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내용들은 오늘날 개인들 사이를 넘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로 퍼져 나가기도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 즉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통신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매스미디어들이다.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전파매체 시대에 탄생해서 전파매체와 함께 성장한 세대이다(Liebert, 1998). 대중매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알려주고, 그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관을 심어주는 특정한 태도나 행동을 추구하는 오락을 제공한다. 또는 설득력과 조작이라는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대중매체를 통해 음주, 폭력과 같은 장면들을 시청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모방하게 되는데, 이는 Bandura(1977)의 '사회 학습 이론'에서도 지지되는 바이다. Kim, D. C.(199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다른 대중매체보다 TV를 접촉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TV가 청소년의 사회적 가

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V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인 동시에 수혜자인 시청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지금까지의 여성 음주 연구의 한계

지금까지의 음주연구는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성인 남자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양태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여성 음주만을 연구한 노력들은 극히 탐구적이거나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음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횡단면 조사 (cross-section study)이며, 서울시 서부지역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은 서부지역의 학교를 무작위로 하여 뽑았다. 뽑힌 학교의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비율에 맞게, 200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83명을 양호교사를 통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음주

음주는 지난 1년 간 음주의 빈도로 측정되었다. 이 문항은 '전혀 안 마신다'를 1점으로, '일 년에 1-4회'를 2점으로, '한 달에 1회'를 3점으로, '한 달에 2-4회'를 4점으로, '일 주일에 2-3회'를 5점으로, '일 주일에 4회 이상'을 6점으로 측정하였다.

##### 2) 음주결과기대

음주로 인한 행동적, 주관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Christiansen(1989)등에 의해 개발된 알코올 기대 설문 청소년 유형(AEQ-A)을 Hong(1989)이 변안한 15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2 문항을 뺀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예'를 2점으로 '아니오'를 1점

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749였다.

##### 3) 우울증세

우울증세에 관한 문항은 Zung(1965)의 자기평정우울척도(Self Rating Depression Scale: SDS) 20문항 중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5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거의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때때로 그렇다'를 2점으로, '자주 그렇다'를 3점으로, '거의 항상 그렇다'를 4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세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824였다.

##### 4) 친구의 음주와 부모의 음주

친구와 부모의 음주에 대한 문항은 Kim(1996)가 고안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안 마신다'를 1점으로, '일년에 1~4회'를 2점으로, '한달에 1회'를 3점으로, '한달에 2~4회'를 4점으로, '일주일에 2~3회'를 5점으로, '일주일에 4회 이상'을 6점으로 측정하였다.

##### 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음주에 대한 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1984)이 제작한 도구 10문항에서 Park, S. Y.(2000)가 신뢰도 검증을 통해 채택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그렇다'를 2점으로, '그렇지 않다'를 3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엄격하고 간섭하며 대상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795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음주에 대한 태도는 각 1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하여 허용적임을 의미한다.

##### 6) 텔레비전의 음주에 대한 영향 요인

Lim(2000)의 연구에서 텔레비전 시청과 텔레비전 속의 음주모습과 술 광고에 대한 태도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9문항을 사용하였다. "TV드라마의 음주장면을 관심있게 본다", "TV 술광고를 관심있게 본다" 등의 문항으로 텔레비전의 음주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그렇지 않다'

를 2점으로, '그렇다'를 3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장면이나 술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809였다.

7)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의 학년, 종교, 성적, 생활수준, 이성교제 여부, 부모의 직업, 가족관계를 중요한 배경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program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음주와 음주기대, 우울증세, 친구와 부모의 음주, 부모의 양육태도, 대중매체의 음주에 대한 영향과의 관련성을 chi-squar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음주는 분포에 따라 '전혀 안 마심', '1년에 1~4회,

'1달에 1회 이상'으로 나누었다. 음주결과기대는 점수의 분포를 따라 평균을 중심으로 이분하였고, 우울증세는 점수를 사분위 (25%)로 나누어 4 개의 범주로 만들어서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음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2사분위와 3사분위를 하나의 범주로 합하여 총 세 개의 범주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텔레비전의 음주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 역시 점수를 4개의 사분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283명은 학년별로 1학년이 93명 (32.9%), 2학년이 139명(49.1%), 3학년이 51명 (18.0%)이며, 종교는 기독교(n=124, 43.8%), 불교(n=36, 12.7%), 천주교(n=34, 12.0%)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66명 (23.3%)이었고, 대상자 중 264명(93.3%)이 부모와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eir alcohol consumption (N=283)

characteristics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χ <sup>2</sup>	P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more than once per month		
academic rank					
1-10	18( 6.6)	33(12.1)	9( 3.3)	33.772	0.001***
11-20	14( 5.1)	31(11.4)	26( 9.6)		
21-30	22( 8.1)	21( 7.7)	19( 7.0)		
below 30	8( 2.9)	13( 4.8)	29(10.7)		
economic status					
high	8( 2.8)	13( 4.6)	14( 5.0)	7.217	0.615
middle	61(21.6)	92(32.6)	68(24.1)		
low	4( 1.4)	5( 1.8)	5( 1.8)		
male friend					
yes	10( 3.5)	17( 6.0)	39(13.8)	34.194	0.000***
no	63(22.3)	94(33.3)	48(17.0)		
living status					
with parents	71(25.3)	105(37.4)	78(27.8)	8.986	0.704
with mother	1( 0.4)	4( 1.4)	7( 2.5)		
with father	1( 0.4)	1( 0.4)	1( 0.4)		
without parents	0( 0)	0( 0)	1( 0.4)		

\*p<0.05, \*\*p<0.01, \*\*\*p<0.001

<Table 2> Alcohol expectancies and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N=283)

alcohol expectancies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χ <sup>2</sup>	P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more than once per month		
higher (13-21점)	21( 8.6)	55(22.4)	64(26.1)	19.978	0.000***
lower (22-26점)	33(13.5)	51(20.8)	21( 8.6)		

\*p<0.05, \*\*p<0.01, \*\*\*p<0.001

동거하고 있었다. 학교성적은 1-40등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생활수준은 중간 수준이 80.9%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 중 음주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변수는 학교성적, 이성교제 유무였다. 학교성적이 낮을 수록 음주의 빈도가 증가하였고( $\chi^2=33.772$ ,  $p=0.001$ ),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학생에서도 역시 음주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chi^2=34.194$ ,  $p=0.000$ ) (Table 1).

대상자의 음주의 빈도와 음주결과기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음주결과기대의 점수 범위는 13-26점, 평균점수는 21.1점 (SD=2.65)이며, 음주결과기대의 점수가 높을 수록 음주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chi^2=19.978$ ,  $p=.000$ ). 특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는 음주기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우울증세와 음주의 빈도와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우울증세의 점수 범위는 19-55점, 평균점수는 35.4점 (SD=7.10)으로, 우울증세와 음주의 빈도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chi^2=19.978$ ,  $p=.341$ ).

친구의 음주가 여고생의 음주에 미치는 결과는 (Table 4)과 같다.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의 음주의 빈도와 조사 대상자의 음주의 빈도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 주었다( $\chi^2=165.460$ ,  $p=0.000$ ). 그리고 친구들 중 술에 취한 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음주의 빈도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chi^2=69.441$ ,  $p=0.000$ ), 함께 술을 마시는 친구는 여자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경우가 125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경우가 73명(25.8%), 남자친구들이나, 남자친구와 단둘이 마시는 경우가 각각 2명(0.7%), 3명(1.1%)으로 나타났다(표 생략).

대상자의 음주의 빈도와 부모의 음주, 음주에 대한 태도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는 (Table 5)와 같다. 아버지의 음주빈도와 음주에 대한 태도는 여고생의 음주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음주의 빈도에 따라 여고생의 음주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chi^2$

<Table 3>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N=283)

depressive symptoms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chi^2$	p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more than once per month		
first quartile (19-29 point)	22(8.3)	23( 8.7)	19(7.2)	6.788	0.341
second quartile (30-35 point)	14(5.3)	33(12.5)	22(8.3)		
third quartile (36-39점)	19(7.2)	20( 7.6)	20(7.6)		
fourth quartile (40-55점)	15(5.7)	34(12.9)	23(8.7)		

\* $p<0.05$ , \*\* $p<0.01$ , \*\*\* $p<0.001$

<Table 4>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and their friends (N=283)

Characteristics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chi^2$	p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more than once per month		
alcohol consumption of friends in past year				165.460	0.000***
none	43(15.4)	37(13.3)	3( 1.1)		
1-4 times per year	18( 6.5)	54(19.4)	5( 1.8)		
once or more per month	9( 3.2)	18( 6.5)	80(28.7)		
percentage of friends intoxicated more than once in past year				69.441	0.000***
0%	22( 7.9)	36(12.9)	6( 2.2)		
less than 10%	23( 8.2)	37(13.3)	14( 5.0)		
10-50%	18( 6.5)	26( 9.3)	32(11.5)		
more than 50%	5( 1.8)	9( 3.2)	36(12.9)		

\* $p<0.05$ , \*\* $p<0.01$ , \*\*\* $p<0.001$

<Table 5> Parents' alcohol consumption, their attitudes toward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and strictness in rearing subjects, and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N=283)

Characteristics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chi^2$	P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more than once per month		
father's alcohol consumption					
none	11( 3.9)	12( 4.3)	10( 3.6)	9.366	0.671
1-4 times per year	11( 3.9)	11( 3.9)	10( 3.6)		
1-4 times per month	28(10.0)	39(13.9)	29(10.4)		
2-4 times per week	20( 7.1)	48(17.1)	35(12.5)		
mother's alcohol consumption					
none	33(11.7)	30(10.7)	25( 8.9)	21.122	0.049*
1-4 times per year	24( 8.5)	35(12.5)	18( 6.4)		
1-4 times per month	11( 3.9)	40(14.2)	36(12.8)		
2-4 times per week	5( 1.8)	6( 2.1)	7( 2.5)		
father's attitude toward alcohol consumption					
very strict	15( 5.4)	33( 7.6)	21( 7.6)	12.024	0.677
strict	14( 5.1)	21( 7.6)	23( 8.3)		
neutral	20( 7.2)	28(10.1)	21( 7.6)		
permissive	13( 4.7)	20( 7.2)	13( 4.7)		
very permissive	2(1.9)	4( 1.4)	4( 1.4)		
mother's attitude toward alcohol consumption					
very strict	20( 7.2)	28(10.0)	18( 6.5)	12.917	0.609
strict	16( 5.7)	24( 8.6)	21( 7.5)		
neutral	13( 4.7)	30(10.8)	25( 9.0)		
permissive	14( 5.0)	24( 8.5)	17( 6.1)		
very permissive	3( 1.1)	3( 1.1)	5( 1.8)		
strictness in rearing subjects					
first quartile (4-6 point)	21( 7.4)	34(12.1)	23( 8.2)	3.823	0.700
second and third quartiles (7-9 point)	43(15.2)	51(18.4)	45(16.0)		
fourth quartile (10-16 point)	10( 3.5)	25( 8.9)	20( 7.1)		

\*p<0.05, \*\*p<0.01, \*\*\*p<0.001

<Table 6> The effects of television alcohol portrayals and advertising on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N=283)

구 분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chi^2$	P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more than once per month		
frequency of watching television alcohol portrayals and advertising					
none or almost none	32(11.8)	43(15.8)	34(12.5)	.801	0.938
often	35(12.9)	54(19.9)	44(16.2)		
very often	7( 2.6)	14( 5.1)	9( 3.3)		
effects of watching television alcohol portrayals and advertising on subjects					
first quartile (9-13 point)	23( 8.8)	20( 7.7)	9( 3.4)	24.364	0.000***
second quartile (14-17 point)	20( 7.7)	31(11.9)	14( 5.4)		
third quartile (18-20 point)	15(5.70)	31(11.9)	28(10.7)		
fourth quartile (21-31 point)	11( 4.2)	25( 9.6)	34(13.0)		

\*p<0.05, \*\*p<0.01, \*\*\*p<0.001

=21.122,  $p=0.049$ ).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음주의 빈도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태도와 음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엄격함과 음주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장면 및 술광고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한 점수의 범위는 9-31점, 평균점수는 17.6점 ( $SD=4.44$ )이었다. TV에서의 음주광고 시청빈도와 음주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음주장면이나 술광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음주빈도에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chi^2=24.364$ ,  $p=0.000$ ).

## V. 논 의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 여고생의 음주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학교성적과 이성교제 유무이었다. 여기서 이성교제를 현재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음주빈도 증가를 보인 것은 전체 조사 대상자중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그룹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일반화시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음주에 대한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의 빈도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상대로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음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Kim, S. D., 2000). 그러나 우울증세의 정도에 따른 음주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청소년기에 우울증세가 가출이나 약물남용 등의 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존연구(Kim, Y. A., 2000)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의 음주는 우울증세를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울증세가 어느 시기에 어떠한 대상자들에 있어 약물남용이나 음주를 유발하는 것인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친구의 음주의 빈도와 술에 취한 경험이 있는 친구가 주변에 많을수록 음주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은 Newcomb(1986)이 말한 청소년기에 약물을 하게 하는 위험요인 10개 중에 또래들의 약물사용, 또래들과의 일탈 행위 등이 중요하다고 한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또한 Kim, H. J.(2000)의 연구에서 음주친구의 수가 4명 이상인 학생들의 음주 경험율은 음주를 하는 친구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음주 친구 수에 따라 음주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음주의 빈도와 음주에 대한 태도는 여고생의 음주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음주의 빈도에 따라 여고생의 음주의 빈도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음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여고생의 음주 빈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부모가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고생의 음주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음주의 빈도와 음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여고생의 음주의 빈도에 있어서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Kim, H. J.(2000)의 부모의 음주여부에 따른 음주경험 학생들의 비율에서 어머니만 음주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과 관련하여, 여고생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정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어머니의 행동이 여고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TV에서의 음주광고 시청빈도와 대상자의 음주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음주장면이나 술 광고로부터 받는 영향이 클수록 음주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Joel(1995)이 언급한 술 광고와 음주 장면은 텔레비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형식상의 음주가 가끔 미화되고 추구하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Joel(1995)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청소년의 음주 장면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드물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미디어의 음주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여고생의 음주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1년 5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서울시내 서부지역에 위치한 2개 고등학교의 1, 2, 3학년 여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 283명은 학년별로 1학년이 93명(32.9%), 2학년이 139명(49.1%), 3학년이 51명(18.0%)으로 종교는 기독교가 43.8%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12.0%, 불교 12.7%, 기타 0.4%, 없음이 31.1%였다. 학교성적은 1-40등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부모님 두 분과 모두 함께 사는 경우가 93.3%이었다. 동거가족 중 술을 마시는 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인 경우가 26.9%, 아버지만 마시는 경우가 25.8%이었다. 생활수준은 중간 수준이 80.9%로 가장 많았고 현재 이성교제는 하지 않는 비율이 76.0%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하였고 이성교제를 하



지 않는 학생에서도 역시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하였다.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의 빈도가 증가하였고 우울 증세의 정도에 따른 음주와의 관계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영향에서 아버지의 음주의 빈도와 음주에 대한 태도는 여고생의 음주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어머니의 음주빈도에 따라서는 여고생의 음주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음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것과 대상자 음주의 빈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부모가 엄격한 양육 태도 역시 여고생의 음주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친구의 영향에서 친구의 음주빈도가 증가할수록 여고생의 음주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술에 취한 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음주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음주와 관련해 여자친구 끼리만 마실 때 보다 남자친구가 섞여 있을 때 음주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V에서의 음주광고 시청빈도와 음주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음주장면이나 술 광고에 대한 대상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음주의 빈도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성친구들과 여럿이 어울릴 기회가 많은데,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택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여고생의 음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여고생의 음주가 증가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래집단과 어울릴 건전한 여가 선택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음주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 성적위주의 입시제도 및 교육 풍토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오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중매체와 인터넷이 우리 실생활에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그에 대한 영향력 또한 매우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사회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매체가 그들의 가치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대중매체와 청소년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

는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매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도구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조사 대상자인 여고생의 음주에 관련된 요인은 대상자 자신의 성적, 친구, 부모, 대중매체 등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증재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양호교사들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호교사들은 학교보건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증대하여 여고생의 문제 행동을 조사하고,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적절한 증재를 위한 정책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여고생의 음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인들에 대해 모두 조사하였으나, 표본수가 작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대단위 조사가 필요하며 각각의 요인별로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Albert, B.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hassin, L., Rogosch, F., & Barrera, M. (1991). Substance use and symptomatology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00, 449-463.
-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 (1980). Depression o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7, 1179-1184.
- Choi, J. A. (199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drinking focusing on socioenvironmental factors and cognitive factor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Choi, Y. S. (1989). *A study on the dormant deviation - proneness of femal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 Christiansen, B. A., Smith, G. T., Roehling, P. V., & Goldman, M. S. (1989). Using alcohol expectancies to predict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after one year. *Journal of Consulting*

- and clinical Psychology*, 57(1), 93-99.
- Finn, P. R., Sharkansky, E. J., Viken, R. V., West, T. L., Sandy, J., & Bufferd, G. M. (1997). Heterogeneity in the families of sons of alcoholics: The impact of familial vulnerability on offspring characteristic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26-36.
- Goodwin, D. W. (1985). Alcoholism and genetics: The Sins of the Fath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171-174.
- Hammen, C., Rudolph, K., Weisz, J., Rao, U., & Burge, D. (1999). The context of depression in clinic-referred youth: Neglected areas in trea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1), 64-74.
- Hong, J. P. (1989). *The effects of alcohol-related expectancies on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eoul.
- Hussong, A. M., & Chassin, L. (1997). Substance use initiation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s: Testing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 272-279.
- Jang, Y. S. (1988).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living conditions of teen-aged students and the plan for their improvement*.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Joel, W. G. (1995). *Television alcohol portrayals, alcohol advertising, and alcohol expectanci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NIH.
- Kaufman, I., & Heims, L. (1958). The body image of the juvenile delinqu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28, 146-159.
- Kim, D. C. (1995). *A study on the preference trend of TV programs and the juvenile view of social value*.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Kim, G. J. (1984).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concept on the self-esteem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Kim, H. J. (2000). *Factors affecting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Master's thesis of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Kim, J. W. (1992).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s - focusing on 'cognitive deconstruction' as a mediator*.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Kim, S. (1990). *Growth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and nursing*. Seoul: Soo Moon Publishing.
- Kim, S. D. (2000). *The effect of alcohol outcome expectancy on drinking: comparison between expectancy theory and expectancy-value theory*.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 H. (2000). *A study on the analysis of drinking and smoking prevalence according to the familial factors: Focusing on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Kim, S. Y. (1996).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lcohol advertisement on drinking perception and intention among adolescent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Kim, Y. A. (2000). *Mediational effects of interpersonal representation on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Korea Alcohol & Liquor Industry Association (1998). *Encyclopedia of common sense about alcohol: A guide to normal alcohol consumption*. Seoul: Korea Alcohol & Liquor

- Industry Association.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9). *A report on the survey of social statistics: family, welfare, labor*. Seoul: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1999). *Depression of adolescents*. Seoul: KYCI.
- Kwon, K. Y. (1982). A study on the familial factors among runaway adolescents, *Theses Collec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10, 162-171.
- Liebert, R. M., & Sprafkin, J. (1988). *The Early Window: Effects of Television on children and Youth*. New York, NY: Pergamon Press.
- Lim, K. Y. (2000). *A study on alcohol expectancies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McDermott, D. (1984).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drug use and parent's attitude concerning adolescent drug use to adolescent drug use. *Adolescence*, 19, 89-97.
-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1996).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prevention policies of drug abuse among adolescents*.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Newlin, D. B., & Thomson, J. B. (1990). Alcohol challenge with sons of alcoholics: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08, 383-402.
- Park, J. A. (2000). *The relation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dolescent depression*.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Park, S. Y. (2000). *An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drinking behavior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high school students in Kang Neung*.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Ryu, K. H. (1997). *The effect of familial history, coping strategies, alcohol expectancies and motivation on drinking behavior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Sher, K. J., Walitzer, K. S., Wood, P. K., & Brent, E. E. (1991).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Putative risk factors, substance use and abuse,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427-448.
- Smith, G. T., Goldman, M. S., & Greenbau, P. E. (1995). Expectancy for social facilitation from drinking: The divergent pattern of high- expectancy and low expectancy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32-40.
- Son, H. J. (1987).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depression and their adjustment to schooling*.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 Abstract -

###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lcohol Consumption among the Korean High School Girls in a Region of Seoul, Korea

*Kim, Joo Hyung\** · *Kim, Eun Kyung\*\**  
*Kim, Hyo Chung\*\** · *Mun, Hyung Sook\*\**  
*Oh, Sun Min\*\** · *Park, Nak Yung\*\**  
*Shin, Hea Chung\*\** · *Lee, Kyung Won\*\**  
*Lee, Chi Sun\*\** · *Choi, Yeon Ok\*\**  
*Choi, Jin Hee\*\** · *Han, Yoo Chung\*\**  
*Hyun, Soo I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lcohol consumption among the Korean high school girls.

283 female students were sampled from two high schools in Seoul, Korea. They were given questionnaires and were asked to fill in and return them during a class hour. The factors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to see their contributions to alcohol consumption using chi-square.

Alcohol consumption was associated with lower school performance ( $p=.001$ ). High alcohol expectancies increased alcohol consumption ( $p=.000$ ): however, depression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to alcohol consumption. Mothers' alcohol consumption, having many alcohol consuming friends and watching TV commercials picturing alcohol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lcohol consumption,  $p=.049$ ,  $.000$ ,  $.000$ , respectively.

Results may imply that alcohol consumption may not be a coping behavior of the depressed high school girls. Parents in Korea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alcohol consumption and its impacts on their daughters. Media effects on alcohol consumption need to be stressed and deserve attention from the public.

**Key words :** alcohol consumption, alcohol expectancies, depression, peer pressure, mass media

---

\* The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